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6.(목) 09:00 배포 2026. 11. 26.(목) 08:00

권대영 1차관, 「월급방위대 TF」 2차 회의 개최

- 주말부부 등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부부 각각 적용**, 근로자 **지방 이전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신설**
- **정책수요자**인 직장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정책제안'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11.27(금)부터 12.6(일)까지 10일간 운영**
- **통신 관련 비용** 등 **필수 생계비 절감** 및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 방안 폭넓게 논의 + **대통령비서실 「월급방위대 TF」와 긴밀히 조율**해 과제가 **구체화되는 대로 발표**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6.11.26(목) 08:00 **관계부처***와 함께 「**월급방위대 TF**(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킥오프 회의(11.13) 이후 관계부처가 **4개 작업반**(①**기존 지원 대책 점검반**, ②**세제반**, ③**재정반**, ④**금융반**)을 중심으로 **발굴·검토**한 **직장인 생활비 부담 경감**과 **실질적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부처별 대표과제(시그니처) 과제**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 참석 : 재정경제부 제1차관,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민경설), 정책조정관(주환욱), 소득법인세정책관(김건영),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예혜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이윤신),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김형광), 성평등가족부 정책기획관(김권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전요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정보름), 기획예산처 통합성장정책관(이병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강연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장(김완국)

금일 회의에서는 지난 킥오프 회의에 이어 「**'26년 세제개편안**」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직장인 체감과제**를 논의하였다. 「**'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주말부부** 등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부부 각각 적용**(부부합산 공제 한도 年 400만원, 원리금 상환액의 40%, 현재는 1세대당 1인만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도 **신설**(최대 월 50만원)될 예정이다.

1 주말부부 전세 등 보증금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 (현행) **무주택 세대**는 **세대당 1명**(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원)**만 공제** 가능 → 직장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주말부부** 등은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 (개선)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소득공제** 적용 가능 (부부합산 공제한도 年 400만원, 원리금 상환액의 40%)

○ (사례) 서울과 세종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 남편 A**과 **아내 B**가 **각각 전세대출 원리금**으로 연 500만원 상환

- [기존] 부부 중 한 명만 소득공제를 200만원(=500만원×40%) 적용
  → [개선] 부부 각각 소득공제 200만원 적용 가능(부부합산 총 400만원)

- [세금] **200만원 소득공제 추가 적용**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약 33만원**(소득세율 15% 가정 시) / **약 53만원**(소득세율 24% 가정 시) **결정세액 감소**

2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 이주수당 비과세 신설

○ (현행) **민간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이주수당**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직원의 이전지원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개선)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을 **신·증설**하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을 이전일로부터 **3년간 비과세**

- [**일반 비수도권**] **월 20만원** (年 240만원)
  [**비수도권 우대지역***] **월 50만원** (年 600만원)

  * 우대지역은 국회 논의를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

○ (사례)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근로자가 근무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회사로부터 **이주수당**을 **월 50만원**(年 600만원) 수령

- [기존] 이주수당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
  → [개선] ❶**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이전 시, 월 50만원(年 600만원) 비과세 적용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약 90만원** 수준(소득세율 15% 가정 시) / **약 150만원** 수준(소득세율 24% 가정 시) **결정세액 감소**

  ❷**일반 비수도권**으로 이전 시, 월 20만원(年 240만원) 비과세 적용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약 35만원** 수준(소득세율 15% 가정 시) / **약 55만원** 수준(소득세율 24% 가정 시) **결정세액 감소**

한편, 정부는 **정책 수요자**인 **직장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정책제안'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1.27(금)**부터 **12.6(일)까지 10일간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손쉽게 직장인 **생활비 절감**과 **실질적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국민 제안과제**는 소관 분야에 따라 **4개 작업반으로 배정**되어, 관계부처가 **정책 체감도**, **형평성**, **재정여건**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접수된 국민제안 중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향후 **대책 발표 시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월급방위대에서 직장인의 월급을 지킬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팝업 게시물

☞ https://naver.me/GQGV3wbC

권대영 제1차관은 "현재 **통신 관련 비용** 등 **신규과제**를 **추가로 발굴 중**이며, 금일 2차 회의에서 **논의**된 **필수 생계비 절감** 및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 방안**과 함께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과제**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12.11(금)까지 부처별 신규과제**를 **보완**하고,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의 조율**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제1차관은 "직장인의 월급을 지킬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현장에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제안**을 **꼼꼼히 검토**해 **기존 틀을 벗어난 과제**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은 **국회 논의**를 **존중**하며,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 일	(044-215-4510)
		담당자	서기관	임동현	(dhlim87@korea.kr)
		담당자	사무관	김근호	(kimroot@korea.kr)